광주 아파트 시가총액 20조원 돌파

부동산써브, 6월말 현재 집계 전년 비 11.5% 증가…북구〉서구〉남구 順

올 6월로 광주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20조원을 돌파했으나 평균 집값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 부동산 자산가치가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에서 시세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21만2천655가구의 시가총액은 20조6천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18조4천851억원)보다 11.5%(2조1천32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1년간 집값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른 데다 가구 수도 지난해(20만5천893가구)보다 6천762가구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광주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천695만원으로, 지난해(8천978만원)보다 8%(717만원) 올랐다.

구별 시가총액은 북구가 6조8천98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6조2천899억원) ▲남구(3조4천640억원) ▲광산구(2조8천510억원) ▲동구(1조1천140억원) 등의 순이었다.

평균 아파트값은 동구가 1억2천50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1억958만원) ▲남구(1억807만원) ▲북구(8천995만원) ▲광산구(7천581만원) 등이었다.

■지역별 아파트 시가총액 및 평균 아파트값

전국	1천487조8천849억원	평균 2억5천530만원
서울	607조7천8억원	평균 5억3천150만원
경기	500조1천510억원	평균 3억396만원
인천	65조3천625억원	평균 1억7천559만원
부산	66조4천714억원	평균 1억3천998만원
대구	50조4천254억원	평균 1억5천178만원
대전	34조6천940억원	평균 1억5천718만원
광주	20조6천173억원	평균 9천695만원
전남	6조6천242억원	평균 6천128만원

〈자료:부동산써브〉

평균 집값은 6대 광역시 중 최저

하지만 광주의 아파트 시가총액 및 평균 아파트값은 여전히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시가총액이 66조4천714억원으로 광주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인천(65조3천625억원) ▲대구(50조4천254억원) ▲대전(34조6천940억원)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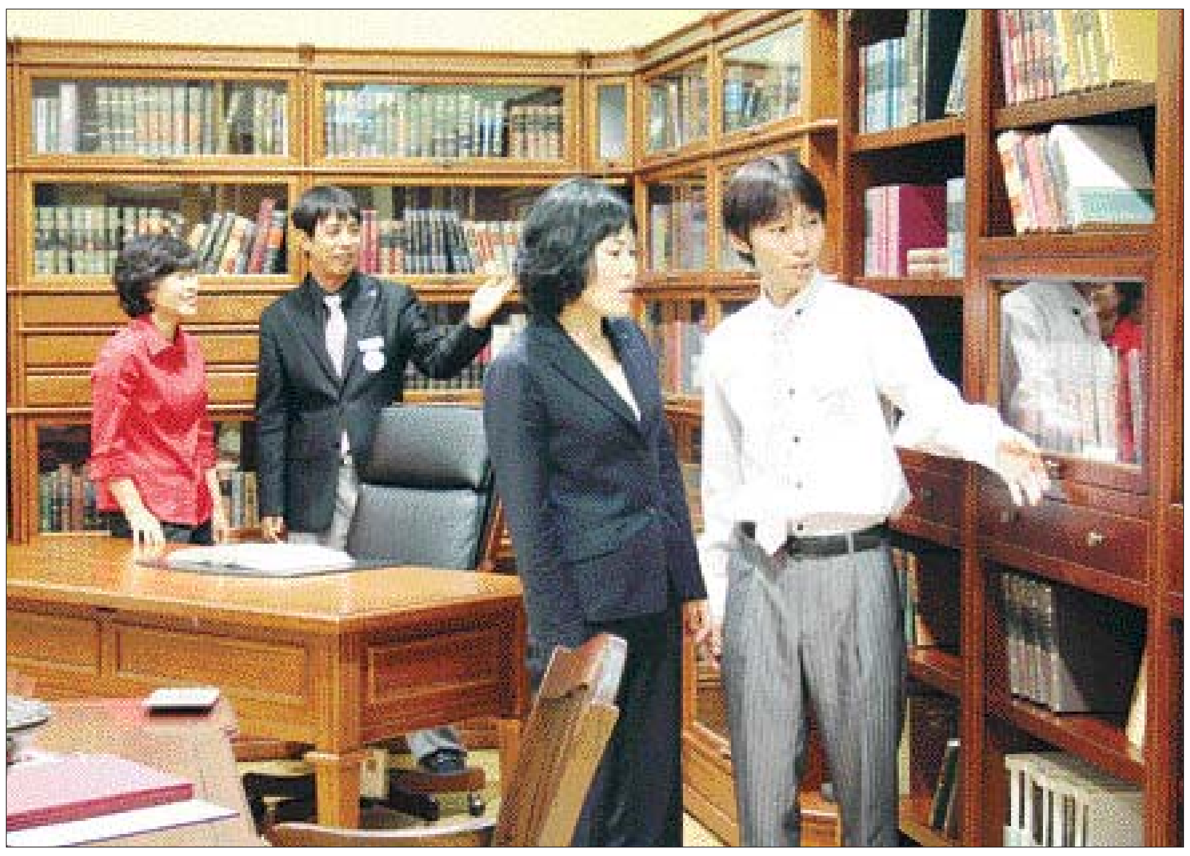
평균 아파트값은 인천이 1억7천559만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대전(1억5천718만원) ▲대구(1억5천178만원) ▲부산(1억3천998만원) 등으로 광주의 집값을 크게 웃돌았다.

울산은 아파트 시가총액이 17조1천661억원으로, 광주보다 3조4천512억원 적었지만 평균 아파트값은 1억2천955만원에 달하면서 광주보다 집값이 높았다. 특히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은 2억5천530만원으로, 광주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시가총액이 607조7천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총 시가총액은 1천173조2천14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시가총액(1천487조8천849억원)의 79% 수준으로, 1년 전(1천42조8천518억원)보다는 12.5%(130조3천625억원) 급등했다.

한편 전남은 시가총액이 6조6천242억원으로, 지난해(6조72억원)에 비해 10.2%(6천170억원) 상승했다.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1조7천652억원)를 제외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데다 평균 아파트값도 6천128만원에 그치는 등 부동산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TV를 밀어낸 서재 가구 2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e-라이브러리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서재 구입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TV 시청을 자제하는 가정이 늘면서 서재 가구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름값 올라도 소비는 늘었다

주유소협회 조사

높은 기름값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2일 주유소협회가 조사한 '5월 주유소 판매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는 1천851만드럼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5% 늘었다. 1드럼은 200ℓ 이므로 3천702만ℓ 가 팔린 것이다.

휘발유 판매량은 1~3월에는 주유소 당 평균 315드럼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3.0% 늘었고 4월에는 322드럼, 5월에는 338드럼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각각 2.2%, 2.7% 증가했다.

경유와 등유까지 합치면 3월까지는 평균 판매량이 1천43드럼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2% 감소했지만 5월까지 누적으로는 5천960만드럼으로 0.1% 줄어드는데 그쳤다.

아직까지 5월 판매량 보고를 하지 않은 주유소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는 전체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소비는 통상 나들이가 많은 8월까지는 늘었다가 이후에는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석유제품 가격상승으로 지난해 휘발유 소비가 1.8% 감소하고 전체 제품소비는 4.1% 줄어들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에 후판(厚板) 공장 건설

지역민 "광양만권 경제 활기" 환영

"전남지역 조선발전 큰 도움"

포스코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광양에 후판(厚板)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광양만권 지역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22일 지역민들과 광양만권 경제단체들은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한동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던 광양만권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며 "후판공장 설립으로 35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함께 인근 조선벨트 등 연관업체를 포함한 1만여명의 간접 고용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회장 송영수)는 21일 환영 성명을 통해 "포스코의 결정은 국토 균형발전과 광양만권 철강 연관기업의 활성화, 고용효과 증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특히 제철소 동호안에 조성될 니켈생산공장, 순천 해룡산단의 마그네슘 판매공장에 이어 후판공장까지 신설돼 광양만권 경제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후판공장 설립은 1919년 광양광산시대→1980년대 광양제철소 준공→1990년대 광양컨테이너부두 개장→2000년대 경제자유구역지정에 이은 광양시 발전의 다섯번째 획기적인 전환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광양항을 통해 남해안에 밀집해 있는 조선업체들에게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전남지역 조선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율촌 1산단 공장용지가 연말이면 모두 분양될 전망"이라며 "2율촌산단 개발을 서둘러 중소 조선업체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일 연간 200만t 규모의 후판공장을 광양에 신설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1조7천910억원이 투입될 이 후판공장은 내년 8월 착공, 오는 2010년 7월 가동에 들어가 배·교량 등을 만드는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강판을 생산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 열린학습동아리

'광주청 I.S.' 최우수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이 지난 19일 상반기 열린학습동아리 우수연구결과 발표대회를 가진 결과 '광주청 I.S.'(팀장 최재훈)의 '세우리·세누리와 함께하는 타자연습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의 의무나 세금의 용도 등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문을 채용, 어린이들이 타자연습을 하면서 세금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팔마포럼'(팀장 서근석)이 발표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계좌 압류시스템 구축 연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열린학습동아리는 일선 실무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보·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 상반기에는 광주국세청 및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모두 50개의 연구제안서, 40개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농협,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확대 앞장

올 상반기 643억원 판매

전남지역 농협이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남지역 농협이 판매한 친환경 농축산물은 643억원어치로, 지난해 한해 동안 취급한 802억원의 80%에 육박했다. 올 말까지는 1천200억원을 웃돌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 15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 1~6월 전남농협의 친환경 농축산물 취급량은 642억5천300만원(전국농협 대비 22%)으로, ▲곡류=140억원(〃26%) ▲채소=45억원(〃21%) ▲과실=375억원(〃21%) ▲축산=1억1천700만원(〃16%) ▲특작 기타=80억원(〃25%) 등이다.

이처럼 친환경 유통이 늘어난 것은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2005~2009년을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기간으로 설정,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경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9만8천ha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남농협은 친환경 농축산물 판로확대와 유통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남농협은 올해 친환경쌀 계약재배와 수매확대를 유도, 지난해 8천161ha보다 178% 증가한 1만4천572ha로 경지면적을 확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예아름저축은행

목포·서광주지점 개점

예아름저축은행은 22일 목포 홍익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목포지점과 서광주지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영업이 정지됐던 홍익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예치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 예아름저축은행은 현재 광양 대운저축은행과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영업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